

# FKI ISSUE PAPER

---

2006. 9. 29(제60호)

## 한미 FTA 기업의견조사 결과

2006년 9월 29일 (제60호)

# FKI ISSUE PAPER Contents

---

<요 약>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I. 조사개요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| 1  |
| II. 분석결과 .....                       | 2  |
| 1. 한미 FTA의 영향에 대한 기업의 시각 .....       | 2  |
| 2. 시장진출 및 개방에 대한 기업의 시각 .....        | 5  |
| 3. 한미 FTA 추진에 따른 기업의 대응 및 활용전략 ..... | 7  |
| 4. 한미 FTA 여론갈등에 대한 기업의 시각 .....      | 9  |
| III. 평가 및 시사점 .....                  | 10 |

FKI Issue Paper는 경제 및 정치·사회분야에서 우리 모두가 대비해야 할 현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대안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고자 발간하고 있습니다.  
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

<요 약>

- 기업들은 한미 FTA 체결시 투자유치가 늘어나고, 수출이 신장할 것으로 기대
  - 전체 응답기업 중 66.7%, 66.0%가 한미 FTA가 투자유치 확대와 수출증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답변
  - 경제시스템 선진화, 국민후생 증대, 현지투자조건 개선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 영향 기대
    - 소비재수입은 38.3%만이 늘어날 것이라고 답변함에 따라 소비재수입 증가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
  
- 한미 FTA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분야로는 전자, 자동차, 섬유, 의료, 금융, 통신 등을 지목
  - 제조업은 전자(28.0%), 자동차(26.8%), 섬유(16.0%), 철강(13.0%)의 순으로 긍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
  - 서비스업은 의료(13.4%), 금융(12.9%), 통신(12.7%), 교육(11.7%), 법률(10.2%)의 순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
  
- FTA를 통해 해소되어야 할 미국의 비관세장벽으로 까다로운 통관 문제와 불합리한 무역구제조치가 49.9%로 가장 높은 비중 차지
  - 전체 응답 중 25.4%와 24.5%가 각각 통관시 애로사항과 무역구제조치 남발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
    - 이밖에 개선을 희망하는 비관세장벽으로 지나친 환경규제(17.5%), 기술장벽(17.2%), 위생검역조치(7.8%), 투자규제(7.6%) 등을 지목

- 신규사업 진출, 현지투자 확대 등 기업들의 전략적 한미 FTA 활용으로 투자 활성화 기대
  - 한미 FTA의 전략적 활용방안을 고려중인 기업은 전체 응답기업의 55.5%인 211개사로, 이중 신규사업에 진출하겠다는 기업이 40.3%에 달하며, 현지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기업이 28.1%에 이룸
    - 또한 국산부품조달 확대(13.8%), 해외부품조달선 미국으로의 전환(13.0%) 등 특혜원산지기준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기업도 26.8%에 이룸
  
- 기업들은 FTA 체결대상으로 미국을 가장 많이 선호
  - 미국을 1순위로 희망한 기업이 43.7%로, 중국을 지목한 기업(23.4%)의 약 2배에 이룸
    - 미국 다음으로 중국, EU, 일본, 인도, 러시아, 남미, 중동, 아프리카의 순으로 FTA가 체결되기를 희망(순위별 가중치 반영)
  
- 국익 극대화를 위한 협상전략 마련에 역량 집중 및 효율적 활용 방안 도출 필요
  - 협상이 진행 중인 시점에서 한미 FTA에 대한 찬반 논란은 불필요하며,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강구에 진력해야 함
  - 협상에 기업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, 특혜원산지규정 충족 등 그 결과를 십분 활용할 수 있는 경영전략 수립이 긴급요

## I. 조사개요

□ 조사기간 : 2006. 8. 7 ~ 9. 8(5주간)

□ 조사목적

- 기업의 한미 FTA 효과 기대수준 측정
- 기업의 한미 FTA 대응전략 파악
- 한미 FTA를 둘러싼 여론갈등에 대한 기업의견 파악

□ 조사대상 : 본회 회원사를 포함한 주요 기업 500개사

□ 응답업체 : 380개사(회수율 : 76%)

- 제조업 256개, 서비스업 99개, 기타 25개

□ 조사내용

- 한미 FTA의 영향에 대한 기업의 시각
- 시장 진출 및 개방에 대한 기업의 시각
- 한미 FTA 추진에 따른 기업의 대응 및 활용 전략
- 한미 FTA 여론갈등에 대한 기업의 시각

## II. 분석결과

### 1. 한미 FTA의 영향에 대한 기업의 시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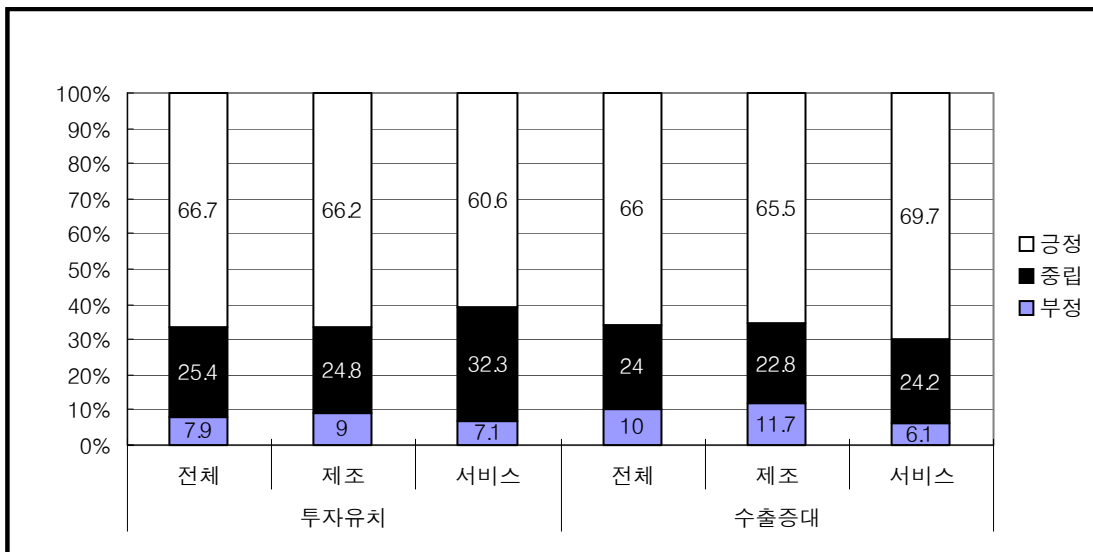
□ 기업들은 한미 FTA 체결시 투자유치가 늘어나고, 수출이 신장할 것으로 기대

◦ 전체 응답기업 중 66.7%, 66.0%가 한미 FTA가 투자유치 확대와 수출증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답변

- 투자유치의 경우 제조업의 66.2%, 서비스업의 60.6%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답한 반면, 부정적일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각각 9%, 7.1%에 그침

- 대미수출의 경우 제조업의 65.5%, 서비스업의 69.7%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 반면, 각각 11.7%와 6.1%의 기업은 줄어들 것이라고 응답

한미 FTA 분야별 효과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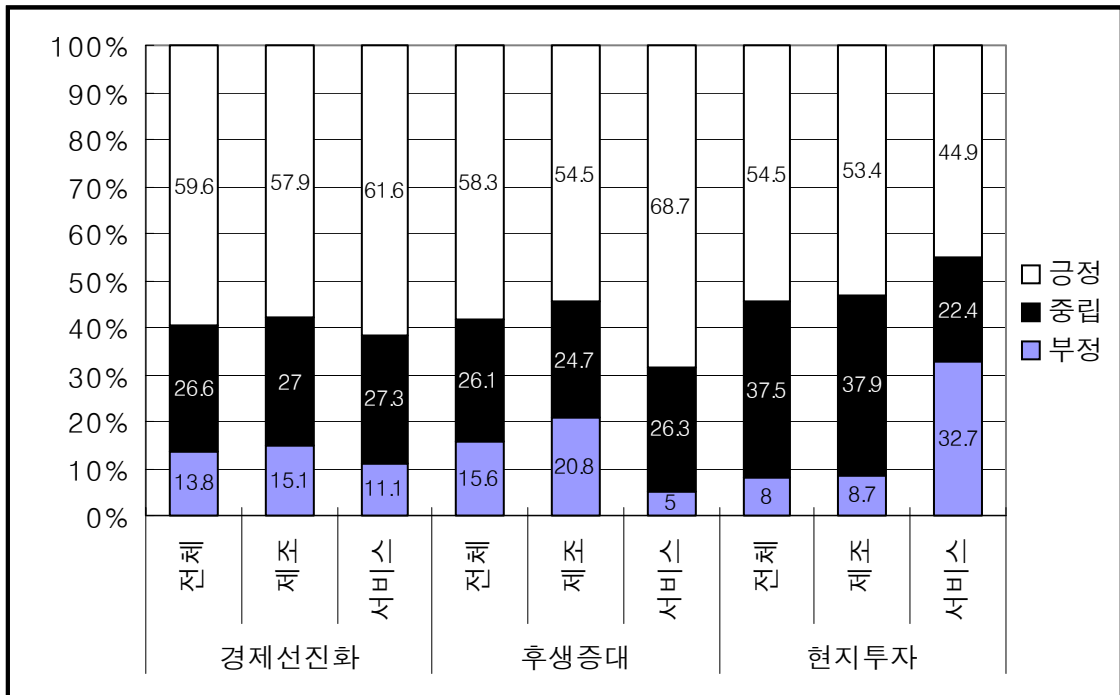


◦ 경제시스템 선진화, 국민후생 증대, 현지투자조건 개선 등에 대해서도 긍정

적 영향 기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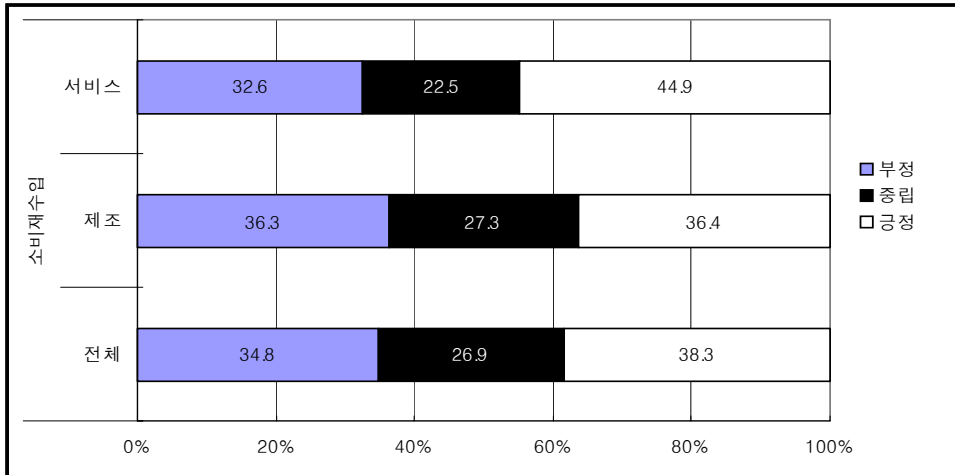
- 제도개선을 통한 경제시스템 업그레이드에 대해 59.6%의 기업이 긍정적일 것으로 답변(부정적 영향 13.8%)
- 국민후생이 증대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58.3%의 기업이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(부정적 영향 15.6%)
- 미국내 현지투자조건에 대해서도 54.5%의 기업이 우호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(부정적 영향 8.0%)
- 특히 제도개선, 국민후생증대 분야에서 서비스업종 기업의 기대효과가 제조업 보다 큰 것으로 조사

한미 FTA 분야별 효과 전망



- 소비재수입은 38.3%만이 늘어날 것이라고 답변함에 따라 소비재수입 증가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

한미 FTA의 소비재수입 증대효과 전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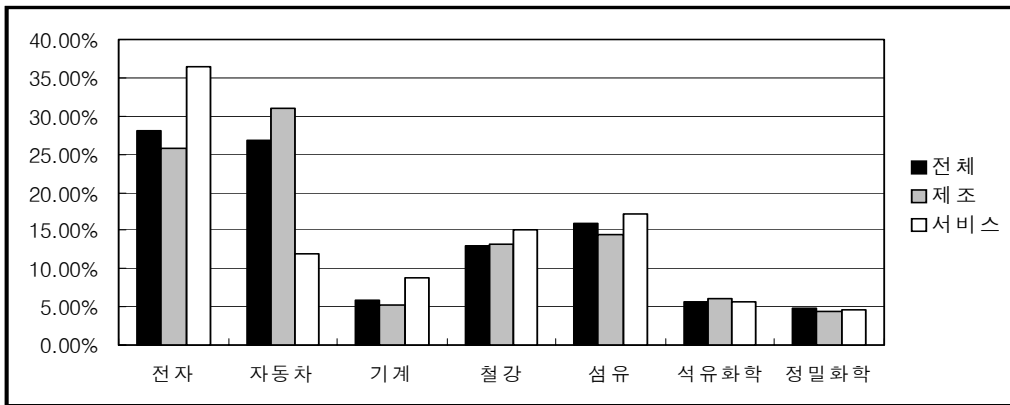


## 2. 시장진출 및 개방에 대한 기업의 시각

□ 한미 FTA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분야로는 전자, 자동차, 섬유, 의료, 금융, 통신 등을 지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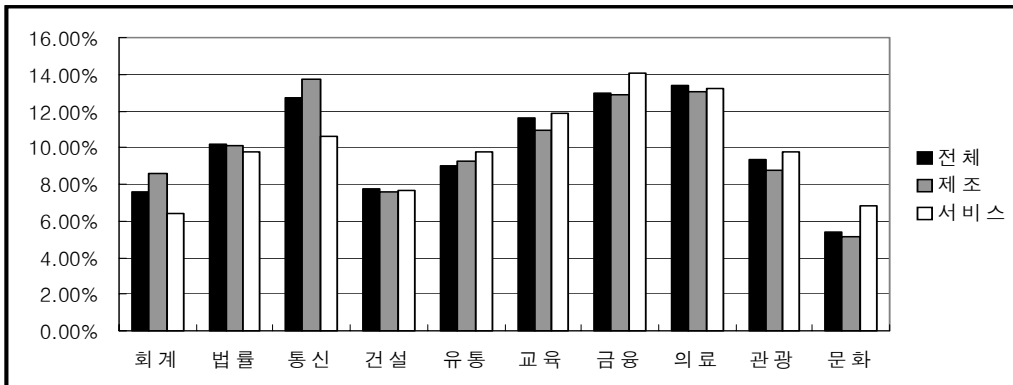
◦ 제조업은 전자(28.0%), 자동차(26.8%), 섬유(16.0%), 철강(13.0%)의 순으로 긍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

제조업종별 한미 FTA 긍정적 효과 전망



◦ 서비스업은 의료(13.4%), 금융(12.9%), 통신(12.7%), 교육(11.7%), 법률(10.2%)의 순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

서비스업종별 한미 FTA 긍정적 효과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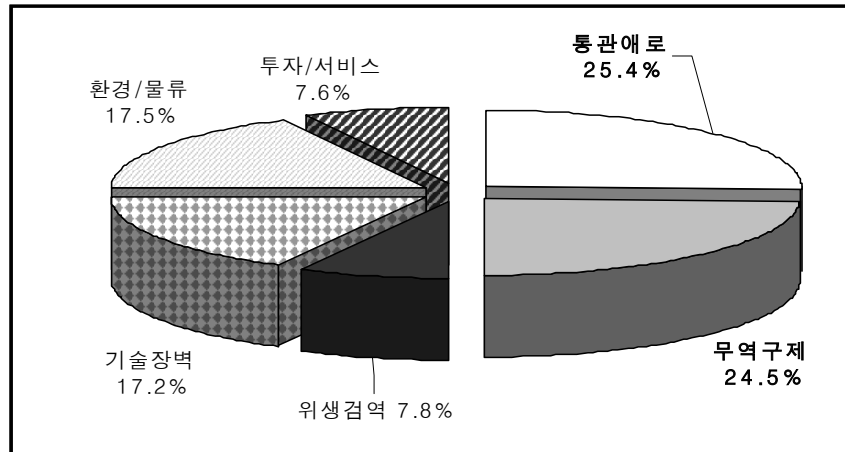


□ 한미 FTA를 통해서 해소되어야 할 미국의 비관세장벽으로 까다로운 통관

문제와 불합리한 무역구제조치가 49.9%로 가장 높은 비중 차지

- 전체 응답 중 25.4%와 24.5%가 각각 통관시 애로사항과 무역구제조치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
  - 이밖에 개선을 희망하는 비관세장벽으로 지나친 환경/물류규제(17.5%), 기술장벽(17.2%), 위생검역조치(7.8%), 투자/서비스규제(7.6%) 등을 지목

개선요망 미국의 비관세장벽



### 3. 한미 FTA 추진에 따른 기업의 대응 및 활용전략

□ 신규사업 진출, 현지투자 확대 등 기업들의 전략적 한미 FTA 활용으로 투자 활성화 기대

- 한미 FTA의 전략적 활용방안을 고려중인 기업은 전체 응답기업의 55.5%인 211개사

- 이중 신규사업에 진출하겠다는 기업이 40.3%에 달하며, 현지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기업이 28.1%에 이릅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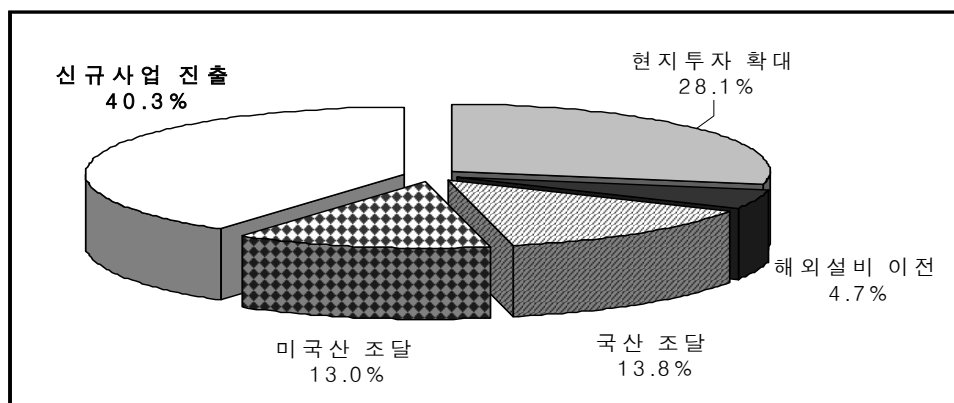
- 신규사업에 진출하겠다는 답변은 서비스업종(50.0%)에서 특히 높게 나타남

- 현지투자 확대의 경우에도 서비스업의 35.2%, 제조업의 25.8%가 고려중이라고 답변

- 또한 국산부품조달 확대(13.8%), 해외부품조달선 미국으로의 전환(13.0%) 등 특혜원산지기준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기업도 31.5%에 이릅니다

- 해외에 생산설비를 두고 있는 기업들이 특혜원산지 활용을 위해 설비의 국내이전을 고려하고 있다는 기업도 4.7%로 조사

유형별 기업의 한미 FTA 활용전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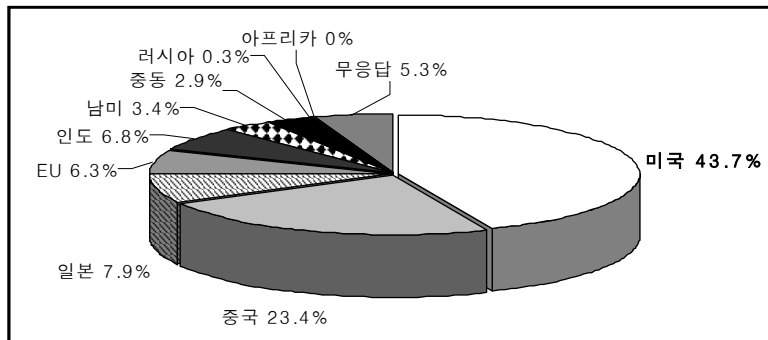


□ 기업들은 FTA 체결대상으로 미국을 가장 많이 선호

- 9개 국가 및 지역을 대상으로 FTA 체결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미국을 1순위로 희망한 기업이 43.7%로, 중국을 지목한 기업(23.4%)의 약 2배에 이릅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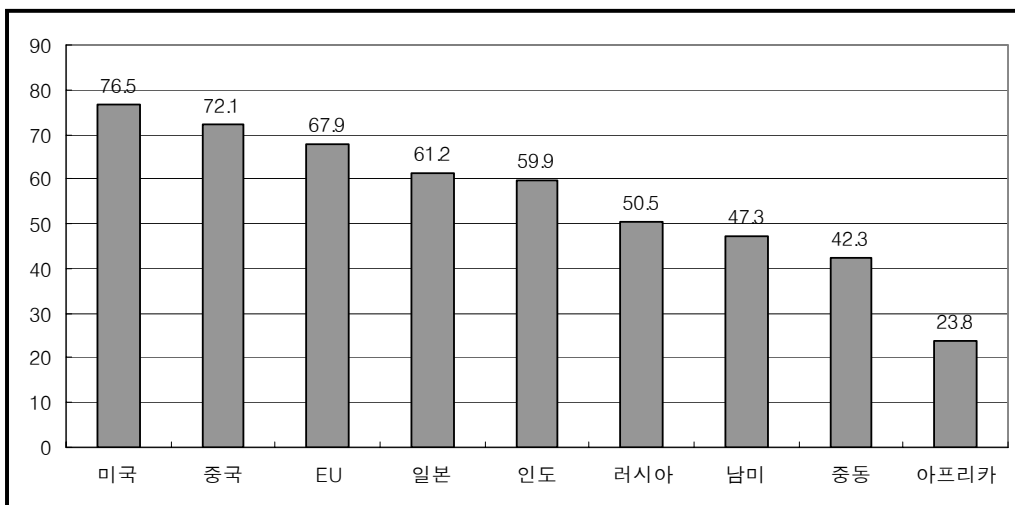
- 제조업 기업의 46.5%, 서비스업 기업의 37.4%가 미국을 1순위로 희망

FTA 추진희망 1순위 국가/지역



- 미국 다음으로 중국, EU, 일본, 인도, 러시아, 남미, 중동, 아프리카의 순으로 FTA가 체결되기를 희망(순위별 가중치 반영)

대상국별 FTA 체결 희망도(가중치 반영)



주 : 1순위 100점, 2순위 90점 ... 9순위 20점, 무응답 10점의 가중치를 매겨 측정  
 (용례 : 모든 기업이 한 국가를 1순위로 지목시 해당국 점수는 100점)

#### 4. 한미 FTA 여론갈등에 대한 기업의 시각

- 여론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FTA 효과를 설득력 있게 제시할 것과,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협상정보의 설명 필요성 제기
- 응답의 44%가 한미 FTA의 효과를 보다 설득력 있게 제시되어야 한다고 밝혔으며, 32.9%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정보를 공개할 것을, 14.9%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국민 홍보에 나서줄 것을 요청

### Ⅲ. 평가 및 시사점

- 여론갈등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미국을 FTA 최우선 추진 대상국으로 희망
  - 한미 FTA 추진을 둘러싼 여론 갈등에도 불구하고, 기업들이 최우선적으로 FTA 체결을 희망하는 국가는 미국으로 나타남
    - 미국과의 FTA 체결은 제조업 수출증대뿐만 아니라, 서비스업 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외 기회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
  - 미국을 비롯한 중국, EU, 일본, 인도 등 기업들이 희망하는 FTA 대상국은 정부의 FTA 추진 로드맵과 대부분 일치
    - 따라서,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FTA 체결 시기와 대상국가의 순서에 대한 더 이상의 논란은 불필요
  
- 한미 FTA 체결은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유치 촉진뿐만 아니라, 국내기업의 투자 활성화에도 기여
  - 조사결과 한미 FTA는 투자여건 개선으로 외국기업의 투자유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나타났으며, 국내기업도 미국진출 및 국내 신규시장 창출 등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
  - 이러한 국내외 기업의 투자 활성화는 고용창출로 이어질 것이며, 부품소재의 국산 조달로 기업간 상생효과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
  - 특히 해외수입제품의 조달선을 미국으로 전환하겠다는 기업 수도 상당하여, 한미 FTA가 양국 기업 모두가 win-win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

- 한미 FTA에 대한 찬반 논란은 지양하고,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협상전략 모색 필요
  - 협상이 진행 중인 시점에서 한미 FTA에 대한 찬반 논란은 불필요하며,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강구에 진력해야 함
  - 여론갈등이 심하다는 것은 높은 국민적 기대의 방증인 만큼, 정부 협상단은 각 이해당사자가 요구하는 바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
  - 이와 동시에 국민들이 한미 FTA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함
  
- 기업들도 한미 FTA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경영전략 수립 필요
  - 조사결과 이미 많은 기업들이 한미 FTA 체결에 대비하여 다양한 대응전략을 마련 중이나, 아직 상당수의 기업들은 충분한 대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  - 한미 FTA는 상품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진입장벽 제거, 서비스 진출 제한 완화 등을 통해 세계 최대 단일시장인 미국으로의 진출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, 국내시장 확대에도 기여할 것임
  - 협상에 기업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, 특혜원산지규정 충족 등 그 결과를 십분 활용할 수 있는 경영전략 수립이 긴급

이 자료는 본회 FTA팀 조성대 조사역이 작성한 것입니다.  
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 
바랍니다.

TEL : 3771-0461 FAX : 3771-0110 E-mail : ndcho@fki.or.kr

발행인 | 강신호 편집인 | 조건호 제작처 | (주)FKI미디어